

< 제 21 장 >

요한복음 마지막 장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특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사명의 위임이 나타났다면, 21장은 그 사명을 실제로 감당해야 할 제자들의 삶과 사역의 방향을 보여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아직 사명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으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요 21:1-14 갈릴리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장소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처음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시 확인시키시기 위한 것이며, “나타내셨다”(ἐφανερώσεν)는 단순히 모습을 보이셨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다는 의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주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으며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온 여인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열 제자와 열한 제자, 디베랴 바닷가의 일곱 제자, 갈릴리에서 제자들, 오백여 형제들, 그리고 승천 이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러한 나타나심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신앙적 상징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증거한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의 이 행동은 단순한 생계의 문제라기보다 아직 사명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지 못한 상태를 보여 주며, 결실이 없었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참된 열매를 얻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장면이다.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라는 표현은 밤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 이루어지려는 순간을 보여 준다.

6절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장면은 처음 부르심의 사건과 연결되며, 사명을 다시 상기시키는 장면이다.

제자들의 사역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9절 육지에 올라서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며, 숯불 앞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장면은 베드로의 회복을 준비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준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미 생선이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수고와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속에서 사용됨을 보여 준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순종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11절 ‘큰 물고기가 153 마리’의 의미

이 숫자는 특별한 상징을 의미하기보다는, 요한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의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라.

이 사건이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사건임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차례 제자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들이 부활의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셨다.

※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보았음에도,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첫째,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마의 지배와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은 그대로였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다.

둘째,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승천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두려움과 혼란을 가져왔다.

셋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후 그 기대는 무너졌고, 부활을 보았음에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넷째,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자, 현실이 보였기 때문이다.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은 영적인 시각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생계를 위해 익숙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된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실망하고 흔들리게 된다.

이는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평안과 은혜를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앞세울 때 그 약속은 온전히 누려지지 못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에서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고(1절),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시고(6절),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며(15절) 회복과 소망을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사명을 일깨우시며 새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요 21:15-19 베드로의 사명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

이는 단순한 사랑의 확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회복과 앞으로 사명을 선언하는 말씀이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를 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셨다.

1.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음의 의미?

1. 21:15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ἀγαπάω 아가파오) 하느냐?”

(ἀγαπᾷς με πλεον τούτων. 아가파스 메 플레온 투톤. Love me more than these)

‘투톤’(τούτων)은 ‘호’(ὁ)와 ‘아우토스’(αὐτός)에서 유래한 지시대명사인 ‘이것’을 의미하는

‘후토스’(οὗτος)인 ‘this’의 복수 ‘these(이것들)’이다.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은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려 했던 어부의 삶과 물고기, 곧 세상의 생업과 현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질문은 “네가 그 삶과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이다.

이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Feed My Lambs)는 말씀을 통해 사명의 시작을 맡기신다.

2. 21:16 “네가 나를 사랑(ἀγαπάω 아가파오) 하느냐?”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것들 보다’의 비교가 사라지고 사랑 자체를 묻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치라”.(Tend My Sheep)

말씀은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는 목자의 사명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헌신과 책임의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보여 준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때때로 세상의 관계와 소유를 내려놓는 결단이 요구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헌신의 사랑’(아가페)을 요구하신 것이다.

3. 21:17 “네가 나를 사랑(φιλέω 필레오) 하느냐?”

예수님께서 세 번째에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질문하신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Feed My Sheep)

이는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8-19절에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예언하신 것이다.

이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 과거의 실패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확인시키는 말씀이다.

II. 베드로가 “아가파오”의 질문에 “필레오”로 대답한 의미?

‘아가파오’(ἀγαπάω)는 생명까지 내어놓는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하지만, 베드로는 세 번 모두 “필레오”(φιλέω)의 사랑으로 대답하였다.

이는 예수님 질문의 의미를 알면서도,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직 생명을 드릴 만큼의 사랑을 말할 수는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III. 예수님께서 세 번째에 “필레오”로 물으신 의미?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사용한 ‘필레오’로 물으심으로 그의 상태를 받아들이셨다. 이는 그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현재의 믿음에서 출발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는 “지금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따르라”는 의미이며, 그 과정 속에서 ‘필레오’의 사랑이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성장하도록 이끄신 것이다.

※ 실제로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헌신된 사역을 감당하였고, AD 64년경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십자가에서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순교’했다.

IV.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세 번 명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며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자의 사명을 맡기셨다.

이 사명은 <마28:19-20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나타낸다.

1.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어린 양”은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는 영혼들, 곧 복음을 처음 듣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 자들이나,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제자로 삼으며,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워 믿음의 삶을 시작하도록 양육하라는 의미이다.

이는 곧 교회가 감당해야 할 전도와 초기 양육의 사역을 말한다.

2. 내 양을 치라. (Tend My Sheep)

두 번째 명령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 아니라 “양”(πρόβατα, 프로바타)을 말씀하신다.

이는 이미 어느 정도 양육되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 곧 말씀을 받고 자라 가는 자들을 가리킨다.

“치라”(ποιμαίνε, 포이마이네)는 단순히 먹이는 것을 넘어, 돌보고, 보호하며, 인도하여 바른길로 이끄는 목자의 사역 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은, 성도들을 악한 세력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지키며, 말씀을 가르쳐 신앙을 성숙하게 하며 끝까지 진리 가운데 서도록 세우라는 뜻이다.

목자의 사명은 단순한 양육이 아니라 보호와 돌봄을 포함한 전인적인 사역이며, 교회의 사명도 사람을 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세워 가는 데 있다.

3.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이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말씀과 성령 가운데 자라도록 양육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사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이 반복은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 사명의 완성을 의미한다.

“어린 양을 먹이라”가 전도와 초기 양육을 뜻하고, “양을 치라”가 보호와 인도를 뜻한다면, 마지막의 “내 양을 먹이라”는 이미 세워진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먹이라는 뜻이다.

이 명령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라는 것이다.

특히 “먹이라”는 명령이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된 것은, 교회의 중심 사역이 결국 말씀을 공급하는 데 있음을 보여 준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지며, 성도는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자 중심 사역은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구원’이 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역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 구원을 이루도록 돕는 일이다.

따라서 목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모으는 데 있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으며, 단순히 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

또한 “내 양”이라는 표현은 양이 주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며, 목자는 성도들을 자기 사람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양을 맡아 돌보는 청지기임을 나타낸다.

이 사명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역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며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다.

요 21:22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매우 분명하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는 제자의 삶의 본질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사명과 삶의 길을 주신다.
신앙의 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궁금해하거나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신
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요 21:24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은 자신이 이 모든 사건을 직접 보고 기록한 증언임을 밝힌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단순한 전승이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도의 증언이며,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내용이 참된 증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요 21: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기록이다.

<요한복음 요약>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드러내는 복음서이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부르심은 과거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삶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의 본질>

성경은 창1장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 주고, 계21장 ‘새 하나님나라 완성’으로 끝을 맺고 있다. 즉 성경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구속의 역사이다.

요한복음 역시 1장 하나님의 ‘성육신’(Incarnation)으로 시작하여, 21장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갈 교회의 사명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가 제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마28:19-20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맡기신 ‘위임령’(Great Commission)이다.

이 위임령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사역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단순한 복음의 기록이 아니라,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구속의 의미를 밝히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사명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다.

결국 요한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사명에 있다.